

적극적 참여 독려와 투명한 집행으로 자조금 거출률 높여야



이상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육우의무자조금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우자조금사업은 5년 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출발하여 육우데이와 육우고기 시식 행사 등 육우소비홍보사업을 비롯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유통개선, 거출홍보 등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육우고기를 알리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육우의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다지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본격적인 의무자조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축종의 자조금이든 의무자조금 사업 첫해는 농가들의 불신과 오해로 거출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해 농가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막 둑을 올린 육우의무자조금사업도 이러한 난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순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유자조금사업(당시는 낙농자조금)은 1999년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사)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 하에 국내 축산업 중 처음으로 임의자조금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무자조금이 아니다 보니 무임승차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원활한 자조금사업 진행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홍보 사업에 진력하면서도,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3~4회 이상의 관리위원회와 2회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농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거출홍보의 경우 지역 지도자 및 낙농가들과 함께 자조금 미납부 농가를 직접 방문, 자조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자조금 거출률이 10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낙농가의 의식의 전환과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우리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낙농가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와 우유자조금 소식지를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소식을 빨 빠르게 전달하여 낙농가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사업의 본래 목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급팽창해 가고 있는 유사음료시장에서 흰 우유의 소비가 둔화되지 않고 꾸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우유의무자조금사업의 사례에 비추어 육우의무자조금이 앞으로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키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농가, 소비자 모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신뢰와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육우자조금의 설립목적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우자조금은 국내 육우산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에게는 땀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게 해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며 위생적인 육우 쇠고기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임의자조금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들을 설득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한발 더 뛰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는 스스로 납부한 자조금이 다시 몇 배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내가 낸 자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려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육우임의자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육우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리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육우 매장을 찾고 수입쇠고기 보다 우리 육우쇠고기가 훨씬 행복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우 소비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육우의무자조금 출범에 앞서 농가와 관계기관 모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믿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우농가 모두의 건강과 사업 번창, 그리고 육우의무자조금사업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